

# 獨逸商社의 對極東進出

— 특히 1900년까지에 있어서 韓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하여서 —

金 光 洙\*

- I. 序 言
- II. 獨逸의 政治的 및 經濟的 狀況
  - 1. 독일제국의 政治的 統一
  - 2. 關稅同盟의 체결과 그 政策
  - 3. 産業革命과 工業의 發達
- III. 使節團의 파견과 조약체결
  - 1. 使節團의 편성과 航海
  - 2. 條約의 체결
- IV. 독일商社의 極東進出
  - 1. 通商條約 체결以前에 있어서의 往來
  - 2. 通商條約 체결後에 있어서의 독일商人
- V. 結 言

## I. 序 言

프로이센이 統一된 獨逸聯邦國家를 組織하기 以前에 이미 極東地域에 使節艦隊를 편성 파견하여서 中國, 日本 그리고 韓國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는 事實은 독일국민이 永遠히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의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社會的인 原因에 依하여 統一을 일찍 이룩할 수 없었던 독일은 比較的 뒤늦게 産業革命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또한 經濟的 狀況도 極 劣位에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極東이 그들에게 紹介되자 極東에 對한 그들의 進出慾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컸었기에 比較的 短期間에 이미 어느정도 有利한 地位를 확보하고 있었던 諸國을 相對로 競爭하며 그들의 位置를 굳힐 수가 있었다. 처음 極東으로 向하였던 독일商人이나 商社는 勇氣와 의욕을 가지고 開拓者의 精神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成長과 擴充은 놀라운만 했다. 그리고 많은 선구적 독일商人들은 必要한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므로서 史料로 제공하려 했었다. 그러나 世界1次大戰, 日本에 있어서

\* 經濟學科 助敎授

의 대지진 및 2次世界大戰은 貴重한 문헌과 資料의 거의 大部分을 없애버렸고 또 史料를 제공할만한 人員들도 이미 存在치 아니하다. 이러한 理由로 因하여 이 分野에 關한 分析이나 研究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苦境을 通過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問題에 關하여 研究를 가까이 하려하지 아니한다.

1961년부터 68년까지의 滯獨期間中에 이 問題에 關하여 우연히 關係를 맺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于先 一次的으로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紹介作業을 試圖해 보려는 생각에서 착수했으나 모든 것이 如意치 않음을 인정하며 보다 좋은 結果는 다음 機會로 미루어야만 할 것 같다.

Hamburg 市 Ballindamm 15 에 位置하고 있는 Ostasiatischer Verein e.V. 의 行政責任者中의 한 사람인 H. Stoltenberg-Lerche 氏는 이 研究에 적극적으로 助力해준 분으로 그 亦是 이 研究의 어려운 이유로서 첫째 초창기에 있어서 極東交易에 종사한 대부분의 企業體는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社史料를 보관 分析할만한 정신적 재정적 여유가 적었다. 둘째 앞서 지적된대로 戰爭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집된 자료가 망실 또는 소실당했다. 세계 當時 상업에 종사하던 商社中 많은 회사가 이미 存在치 아니한다. 그리고 넷째로 존재하는 會社中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紹介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개 3部分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독일이 工業化하는 時期에 있어서의 産業의 구조 발달을 분석했다. 둘째는 對極東 通商交涉使節團의 편성과정과 그들의 航海日誌를 살폈고, 마지막으로 독일이 極東의 諸國과 通商條約을 체결하는 時期를 前과 後로 나누어 당시에 실제로 무역에 종사한 商社의 설립과 經營을 紹介했다. 보다 충분한 史料를 구하여 보다 충실한 검토와 分析이 계속되어지리라 믿는다.

## II. 독일의 政治的 및 經濟的 狀況

### 1. 독일帝國의 政治的 統一

1806年 Napoleon 1 世가 Rhein 聯邦을 組織하자 독일內의 諸侯伯은 이 聯邦에 參加하므로써 그 數가 37個國에 이르렀다. 聯邦에 加入치 아니한 2國인 Preußen 과 Österreich 中 프로이센은 Napoleon 打倒를 至上目標로 설정하고 충실히 國力의 增強을 企圖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프로이센의 念願은 1813年 Leipzig 에서 Napoleon 軍을 英露聯合軍과 더불어 격파하므로써 그 첫 과정을 이룩했다고 본다. Napoleon 의 沒落後 Wien 列國會議의 結果 프로이센은 以前보다 廣大한 國土를 領有케 되었고 獨逸內의 여러 작은 諸侯伯國은 Deutscher Bund 를 結成케 되었다. ① 1816년에 組織되어진 독일연방은 Österreich, Preußen 以下 35個國의 君主國과 Lübeck, Hamburg, Bremen 및 Frankfurt 의 4 自由市에 依하여 형성되었으며 Frankfurt 聯邦議會를 開

註 ① vgl., Crane Brinton, John B. Christopher, Robert Lee, *A History of Civiliz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1960, (梁秉祐, 閔錫泓, 李普珩, 金聲近 共譯, 世界文化史, 中, 서울, 1963), S. 556~561.

設했다. 盟主格인 오스트리아는 Clemens Metternich가 首相으로 있으면서 烈國間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外交의 手腕을 發揮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現狀維持主義者 혹은 保守主義者였으며 自由主義를 억압하고 專制主義를 謳歌하고 있었다. 프로이센 역시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같은 전제정치를 行하고 있었다. 그러나 兩國을 除外한 독일 特히 南獨의 諸國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간섭과 壓迫을 두려워했으며 또한 나아가 國民들의 後援을 必要로 했었기 때문에 比較的 自由가 확보되어졌었다.<sup>②</sup> 專制政治에 對하여서는 青年學生들의 움직임이 特히 현저했다. 自由를 억압하는 전제정치에 對하여 憤懣을 안고 있었던 學生들은 Burschenschaft를 結成하고 祖國의 統一, 學門의 自由 그리고 專制政治에 反抗하는 組織의이면서도 과격한 鬪爭을 계속했던바 이때 巴里에서 突發한 소요와 그 革命의 影響을 크게 받아 독일 統一運動을 助長하므로 言論의 自由, 陪審制의 採用, 國民兵의 編成, 獨逸中央政府의 創設 및 中央議會의 開設 등을 強力히 要求하는 독일국민의 改革運動은 聯邦 各國에 있어서의 自由主義의 內閣의 出現을 가져왔던 것이다.<sup>③</sup>

獨逸聯邦會議은 이러한 情勢를 정확히 判斷하고 Frankfurt/M에 各國의 代表者를 召集하여 當面한 問題를 협의했다.<sup>④</sup> 프로이센도 이를 支持했으며 오스트리아는 1848年 3月 25日을 期하여 各國 君主를 Dresden에 會集시켜 本議題를 檢討하려했으나 Wien, Berlin 등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므로 因하여 國王은 國民과 妥協하여 그들의 要求에 따라 5月 18日 586名으로 구성된 獨逸國會를 열었고 立憲君主制를 採擇하도록 決定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帝國中央政府를 設立하고 6月 29日 오스트리아의 Johann 공을 Reichs Verweser로 選任함으로써 大독일主義가 이긴 純然한 聯邦國家가 組織되었으나<sup>⑤</sup> 다만 各國 政府의 代表者가 모여 組織되었으므로 何等의 實權도 갖지 못했고 또 各 邦國를 直接 統御할 實力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 一例로 Schleswig-Holstein 兩公國의 問題가 후랑크홀트國會의 無能을 明白히 나타내고 있다. 1850年 10月 독일內의 Hessen-Kassel 國의 內政問題를 中心으로 해서 일어난 事件으로 프로이센은 굴욕적인 立場을 甘受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1862年 9月 Otto von Bismarck의 任命을 계기로 독일統一이라는 課題를 向하여 邁進하는 強硬政策을 採用했다. 軍備擴張을 主張하면서 독일의 문제는 1848年 및 49年頃과 같은 連설이나 多數決로서는 결코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다만 鐵과 血에 말갈 수 밖에 없대라고 主張한 비스말크의 열변이 이를 단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비스말크의 鐵血政策은 1864年에 있어서 對 丁抹, 1866年의 對 오스트리아 그리고 1870年의 對 佛戰爭을 惹起시켰으며 이 3戰爭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勝利는 1871年 1月 18日 프로이센王 Wilhelm 1

註 ② & ③ vgl., 丸山國雄, 日獨交涉史話, 東京, 1941, S. 2~7.

④ 梁秉祐, 閔錫泓, 李普珩, 金聲近 共譯, a. a. O., 中 S. 592.

⑤ vgl., 丸山國雄, a. a. O., S. 8.

世를 독일황제로 하고 독일은 聯邦의 帝國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프로이센王이 거의 聯邦政府의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 2. 關稅同盟의 체결과 그 政策

獨逸資本主義는 18世紀末로부터 19世紀後半에 걸쳐 그 構造를 확립했으며 유럽大陸 第 1의 經濟的 強國에로의 급속한 약진은 一般的으로 1871년의 帝國創建에 依한다고 생각되어진다. 勿論 全體的으로 보아 이러한 主張은 正當하다. 그러나 帝國의 創建 以前의 독일은 빈약한 農業國家였고 經濟的 發展面에 있어서 他 西歐諸國에 比하여 훨씬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分明히 유럽 工業化의 中心은 1870年 以前에는 Rhein의 西方에 있었기 때문이다. 獨逸資本主義가 그의 構造를 확립하는 時期에 있어서 이미 世界의 工場이라는 地位를 獨占하고 있었던 英國을 中心으로 해서 形成되어지고 있던 國際經濟의 소용돌이 속에서 英國의 影響을 받으면서 獨自의 方向으로 國民經濟를 건설 발전시키고 있었던 獨逸은 群立되어 있었던 多數의 領邦國家狀態를 프로이센의 主導下에서 國家의 統一을 達成해가는 過程에 있었다. 1790年頃の 독일은 거의 1800의 關稅領域으로 分裂하고 19世紀初의 프로이센에서 조차 相異한 關稅表를 가진 67의 關稅領域으로 分裂되어 있었다.<sup>⑥</sup>

1815년의 Wien 會議以後도 39의 小領國으로 分割되어 있었기 때문에 當時의 독일經濟는 統一의인 國內市場의 形成에는 아직 먼 狀態이었다. 독일人들은 마치 죄수가 감방의 창살막힌 창문을 통하여 行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去來를 營위하고 있었다고<sup>⑦</sup> 한 外國人에 依하여 조소되었지만 이 감방의 창살에 해당하는 것이 번잡이 극하였던 國內關稅 即 內國消費稅와 關稅라는 存在이었다. 독일은 19世紀 前半으로 부터 普佛戰爭에 이르는 期間 主로 域內關稅를 輕減하고 關稅同盟을 形成하는 것에 依하여 國內經濟發展의 基礎를 強化하고 있었다. 1815年 뷔엔나會議에 依하여 독일聯邦이 構成되었지만 이것은 各各 自主權을 所有하고 있는 38의 領國과 都市에 依하여 이룩되어진 애매한 聯合體이며 決코 統一의인 國家가 아니었기 때문에 各國은 獨自의 經濟政策과 主로 財政收入을 확보하기 위한 目的으로 獨自의인 關稅政策을 採擇하고 있었다.

독일에 있어서 諸小主權國家들은 各自 獨自의인 關稅組織을 가지고 있었으며 特히 프로이센은 他에 比하여 높은 高率關稅制度를 採擇하고 있었다. 當時 독일工業의 4大中心地中 Berlin, Westfahlen 그리고 Schlesien의 3地域을 占有하고 있었고 거기다 새로 Rhein 工業地帶를 획득한 프로이센은 產業과 貿易의 振興에 힘을 傾注하여야 했기에 1818년에 새로운 關稅法과 關稅率을 採擇했다. 프로이센은 內國關稅를 철폐하고 輸入關稅率을 輕減하므로써 自由무역에로의 움직임을 強化시켰던 것이다.<sup>⑧</sup>

註 ⑥ vgl., 大塚久雄編, 西洋經濟史, 東京, 1968, S. 197.

⑦ vgl., a. a. O., S. 197.

⑧ vgl., Theodor Plaut, *Deutsc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 Berlin, 1929, S. 76~77.

1828년에 關稅同盟에도 第2段階를 맞이했다. 南獨의 Byern 과 Württemberg 가 프로이센의 關稅同盟에 對抗하여 共通의 關稅率을 採用하고 南獨 關稅同盟을 結成했다.<sup>⑨</sup> Hannover, Sachsen, Kur-Hessen, Braunschweig, Thüringen 諸邦 Frankfurt/M 그리고 Bremen 等の 中部 諸邦은 프로이센의 의도에 反하여 結集했다.<sup>⑩</sup> 이것은 全獨의 關稅統一에 依하여 外國市場을 상실할 것이 두렵던 英國에 依하여 支援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독일은 3個의 關稅地域으로 並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프로이센은 적극적으로 南獨 關稅同盟에 接近하였고 1829년에는 南獨 關稅同盟과 通商條約을 체결하는데 成功했다.

1834년에는 프로이센을 盟主로 하여 독일諸邦 18個國이 독일關稅同盟(der Deutscher Zollverein)을 結成하므로 8253meilen<sup>2</sup>, 人口 2,500萬名을 함유하는 強力한 關稅장벽에 둘러싸인 經濟圈을 形成했다.<sup>⑪</sup> 그리고 이 關稅同盟은 점차 擴大하여 1852년에는 거의 大部分의 독일國家에 波及되었고 其間에 독일商業에 對한 많은 內部的 制限을 철폐하는 政策이 착착 進行되었던 것이다. 1867년에는 北獨同盟과 南獨 諸國과의 條約에 依하여 新關稅同盟이 成立하므로 그 加入者의 範圍도 한층 더 擴大되어 보다 有效 有力한 것으로 發展했다. 1871년 독일제국이 成立當時에 있어서 독일의 關稅는 一般的으로 낮았고 其後에 1873年, 1877年의 關稅改正을 通하여 保護關稅를 全廢하므로서 독일에 있어서 自由貿易時代를 實現했던 것이다.<sup>⑫</sup> 그러나 1879년에 비스말크에 依한 關稅改正을 계기로 하여서 독일은 本格的인 保護貿易政策으로 轉換했으며 其後의 關稅政策은 V. Bülow 와 Caprivi 等に 依하여 계승 집행되었고 第1次 世界大戰까지 幼稚産業保護論者 F. List 의 祖國은 계속적인 保護貿易政策을 採擇한 國家로 나타났던 것이다.<sup>⑬</sup>

### 3. 産業革命과 工業의 發達

독일에 있어서 産業革命의 準備期는 英國에 있어서 本來的인 産業혁명이 開始되었다고 보는 時點 即 大略 1780年代의 中葉이라고 主張되어지고 있는바 그 理由는 이 時期에 있어서 Sachsen, Berlin 그리고 Düsseldorf 近郊의 Rhein 右岸地域에서 最初의 紡績機를 發見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⑭</sup> Düsseldorf 에서는 이미 紡績工場內에 紡績機가 시설 使用되어지고 있었으며 또 Ratingen 에서는 商人 Brüggelmann 이 英國人 技師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미 1784년에 Waterfram 을 제작하고 1785년에는 領主로부터 獨占特權을 획득하여 유럽大陸 最初의 紡績工場을

註 ⑨ vgl., Friedrich Lütge, *Deutsche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Aufl., 2, Berlin, Göttingen & Heidelberg, 1960, S. 415.

⑩ vgl., a. a. O., S. 415.

⑪ vgl., a. a. O., S. 416.

⑫ vgl., Kwang-Soo Kim, *Der Außenhandel Japans und Kore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utschlands, 1890~1914*, Heidelberg, 1968, S. 36.

⑬ vgl., Theodor Plaut, a.a.O., S. 90, vgl., Sartorius von Waltershausen, A.,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1815~1914*, Jena, 1920, S. 387.

⑭ vgl., Hans Mottek; *Einleitende Bemerkungen-Zum Verlauf und einigen Hauptprobleme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in Deutschland*, Berlin, 1960(大島隆雄 譯, ドイツ産業革命, 東京, 1968), S. 17.

건설했던 것이다.<sup>15</sup> 그리고 같은 때 Sachsen 地方에서는 家內工業間에 手動的 Spinning Jenny가 나타났으며 여기서 紡機의 利用은 紡績工場의 건설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小經營內에 퍼져 곧 紡機의 製作工이 出現케 되었다.<sup>16</sup>

1797년에 Mule 紡績機의 제작에 成功하고 99년에는 Chemnitz 近郊의 Haltau 에서 英人技師 วัต트슨과 英人紡績工 에비안즈의 도움으로 紡績 및 紡機製作을 위한 Mule工場을 建設하는 等 努力을 經濟發展을 이룩했으나<sup>17</sup> 그러나 독일에 있어서의 發展은 극히 完滿했고 産業革命의 準備段階가 比較的 長期間이었다. 이 原因으로써 Hans Mottek 教授는 그의 저서에서 대개 다음과 같은 3要因을 지적하고 있다.<sup>18</sup> 即 첫째 19世紀 初葉에 있어서 始作한 農村의 封建的 生産關係와 都市의 中世的 工業體제의 廢止 等 變革이 長期化했다는 것, 둘째 政治的, 經濟的 觀點에서 본 독일의 國民的 分裂, 세계 獨일에 있어서 새로운 生産諸力의 導入, 成長速度와 新技術을 기초로 한 不變固定資本의 大量投下의 開始를 지연시킨 具體的인 歷史的인 要因으로써 90年代에 있어서의 英國과의 競爭開始, 유럽에 있어서의 戰爭, 그리고 보나발트의 佛蘭西에 依한 獨일에 對한 民族的 억압 等이다.

완만한 發展에도 不拘하고 20年代 및 30年代 初에 있어서 徐徐히 産業資本主義 發現의 前提가 이룩되었으며 産業革命 準備期가 이렇게 하여서 독일의 大部分에 對한 經濟的 統一을 達成한 關稅同盟의 設立으로써 終結했다고 본다. 이어서 産業革命 自體가 始作하여 1873년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不變固定資本의 強力한 投下를 基礎로하여 30年代後半 特히 40年代에는 生産 特히 資本主義의 工業經營의 生産成長速度가 急速化해졌다. 換言하면 1840年代以後는 鑛山業 冶金業 그리고 機械工業을 中心으로한 産業化가 비약적으로 進展한 時期라고 볼 수 있다. 鑛山 及 銑鐵生産面을 살펴보면 1835年으로부터 47년까지의 期間에 鑛山業에 있어서는 1834年을 100으로 할 때 162.5%의 生産上昇을 볼 수 있으며 一方 1822年으로부터 34년까지의 上昇은 1821年을 100으로 하고 겨우 33%에 不過했다. 鐵工業에 있어서 對應하는 數字는 138.09%와 61.53%이다.<sup>19</sup>

1830年代 末로부터 重工業用의 機械와 原材料의 수입이 격증하기 始作했다. 關稅同盟의 鐵材輸入量은 1837년에 있어서 15.6萬 Zentner 였으나 1844년에는 151.8萬 Zentner로 近 10倍가 량 增加하고 있다. 기계 原材料의 輸入에 의거하면서 出發했던 독일은 곧 海外依存으로부터 脫却하여 重工業의 自立體제를 굳혔고 70年代頃에는 反對로 重工業製品의 輸出國으로 轉換하고 있다. 即 1850年代에는 只今까지 多目的으로 使用되어졌던 萬能型的 工作機械에 對하여

註 15 vgl., Hans Mottek, a. a. O., S. 17.

16 vgl., 大塚久雄編, a. a. O., S. 203.

17 vgl., a. a. O., S. 203.

18 vgl., 大島隆雄譯, a. a. O., S. 18~19.

19 vgl., T. Kuczynski; *Die Geschichte der Lage der Arbeiter in Deutschland von 1800, bis in die Gegenwart*, Bd. 1, Berlin, 1947, S. 77~78.

特殊한 工作機械가 代替 普及됨과 同時에 독일製 機械가 外國市場 特히 Rußland 와 Österreich 에로 進出하기 시작했고 1863년에는 關稅同盟地域의 機械輸出額이 비로소 輸入額을 증가하기 에 이르렀던 것이다.<sup>㉑</sup> 뿐만 아니라 40年代까지는 英國과 벨지움으로부터의 銑鐵수입에 對한 依存度가 무척 컸었으나 50~60年代에는 Saal 및 Ruhr 地方에 있어서 코르크스高爐의 普及結果 輸入銑鐵에 對한 競爭力이 強化되었고 68~69년에 이르러서 輸出量이 輸入量을 처음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한 機械製作 및 製鐵業의 發達과 關聯하여 30年代以來 石炭 生産이 急増하여 1865년에는 2,500萬噸을 生産하여 英國에 이어 世界 第2位의 자리를 확보했다.<sup>㉒</sup>

1837년에 비로소 10,300錘를 가진 5個의 機械化된 방직工場을 가졌던 독일이 9年後에는 그 數가 14個處 그리고 그 錘數는 45,000으로 增加했다.<sup>㉓</sup> 1846년에 있어서 全關稅同盟 諸國에는 313紡績工場이 750,274紡錘의 시설을 확보하고 1834~35年으로 부터 1848~49年內에 있어서 독일의 綿糸수요에 對한 독일방직業의 供給率은 31.7%로부터 37.7%에로 上昇하고 있다.<sup>㉔</sup>

이와같은 産業化의 進行過程에 있어서 重要한 역할을 다한 것이 鐵道의 敷設과 이 分野에 나타난 새로운 企業형태이다. 1835年 Nürnberg-Fürth間의 5哩거리의 鐵道가 開通됨으로서 시작되는 독일에 있어서의 鐵道敷設은 독일산업혁명의 開始期에 始作하므로써 市場의 擴大와 關聯産業에 對한 波及效果가 컸을 뿐만 아니라 産業化의 급속한 進行에로의 有力한 突破口이 기도 하였다. 他國에 比하여 鐵道의 必要性和 利點을 정확히 理解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독일은 인접 제국에 比하여 그 建設費用이 적게 들었고 또한 全國民을 陶醉케 했던 鐵道株의 投機는 40年代에 있어서의 독일로 하여금 鐵道망의 擴充率을 유럽에서 第1位에 서게 했다. 프로이센만 하더라도 1844년에는 800km, 1848년에는 2,400km, 그리고 1860년에는 5,600km가 開通되어지므로 國內外 商品輸送에 크게 기여케 되었다.<sup>㉕</sup>

1887년에는 겨우 20,390隻의 內航船舶만을 확보하고 있었던 독일도<sup>㉖</sup> 外國무역과 植民地爭奪이 加重하자 점차 그 保有高가 急増하여 1880년에는 33.5 Milliarden Tonnen Kilometer 의 外航船舶을 기록하고 있으며<sup>㉗</sup> 10年後인 1890년에는 內航 5.6外航 74.1 Milliarden Tonnen Kilometer 를 기록하므로써 海外市場開拓과 商品수송을 위한 準備를 갖추었던 것이다.<sup>㉘</sup>

註 ㉑ vgl., 大塚久雄編, a. a. O., S. 212~213.

㉒ vgl., a. a. O., S. 213~214.

㉓ Werner Sombart, *Die deutsche Volkswirtschaft im neunzehnten Jahrhundert und im Anfang des 20. Jahrhunderts*, stuttgart, 1954, S. 304.

㉔ vgl., 大島隆雄譯, a. a. O., S. 63~64.

㉕ Kwang-Soo Kim, a. a. O., S. 21.

㉖ vgl., Sartorius von Waltershausen, A. a. a. O., S. 541.

㉗ vgl., Walter G. Hoffmann; *Das Wachstum der deutschen Wirtschaft seit der Mitte des 19. Jahrhunderts*, Berlin, Heidelberg & New York, 1965, S. 417.

㉘ vgl., a. a. O., S. 417.

비록 英國에 比하여 늦게 産業革命過程에 들어갔으나 독일은 모든 基礎産業이 括目할만한 成長을 이룩하였고 또 적극적인 對外進출을 支援할 手手段이 급속히 發展하므로써 外國市場開拓 및 확보를 위한 능동적인 政策을 採擇케 되었는데 그 一還으로써 對 極東進출도 적극적으로 숙고케 되었던 것이다.

### III. 使節團의 파견과 條約의 체결

#### 1. 使節團의 編성과 航海

關稅同盟이 成立하므로써 독일의 統一은 經濟的 方面으로부터 漸次 이룩되기 시작했다. 그 後 10年 即 1843년에 프로이센議會는 처음으로 東洋方面에 對한 貿易開拓에 關한 建議案이 提出되어졌다. 그 內容은 먼저 新加坡에 근거지를 設置하고 對 中國貿易을 開始하기 위한 準備를 갖추후 中國과의 通商條約을 체결하고 이어 계속하여 極東의 諸國으로 進出하려는 것이었다.<sup>⑧</sup> 勿論 그렇다고 해서 이 以前에 독일商人들이 極東을 全혀 訪問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1620年代에 이미 宗教人들이 中國을 訪問하였으며<sup>⑨</sup> 그 後부터는 宗教 및 學術目的 等を 위한 여행이 계속되었다.<sup>⑩</sup> 18世紀初에 이미 對 東洋貿易을 目的으로한 商社가 組織되기 始作했으며 1745년에는 Asiatische Handlungs-Kompanie가 設立되었다. 이 會社는 1750년에 Friedrich den Großen에 依하여 Königliche Preußische Asiatische Companie로 發展되었으며 이 商社의 첫 선박인 “König im preußen”은 6個月間의 航海 끝에 中國을 訪問하고 다시 1753年 7月 6日에 Emden에 歸港했다.<sup>⑪</sup> 그 後 漸次 極東을 向한 航海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主로 中國으로부터 絹織物, 茶, 陶磁器, 螺鈿, 그리고 漆器 等を 구입했었으나 어디까지나 國家 對 國家의 正式交易는 아니었다.

1842년에 英國과 中國間에 所謂 南京條約이 체결되고 이를 通하여 英國이 莫大한 利益을 획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開港場에 있어서 個人交易의 自由가 保障되고 Hong Kong을 英國에 割讓했다는 사정이 歐州 諸國에 알려지자 各國은 競爭하여 中國에 對한 關心을 갖게 되었고 또한 注意를 集中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센도 역시 使節을 파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된었던 것이다. 1843년에 프로이센政府에 提出되어진 함대파견에 關한 建議案은 그 後 잠시 放任되어져야만 했다. 그 理由는 독일領內에는 아직 小國家들의 對立이 常存했고 Österreich, Frankreich 그리고 Rußland 3個國과의 關係 등 國內外的으로 무척 복잡 多難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나 計劃은 決코 폐기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徐徐히 움직이고

註 ⑧ vgl., 丸山國雄, a. a. O., S. 22.

⑨ vgl., Hrsg. Ostasiatischer Verein Hamburg-Bremen, *Gedankenschriften Zum 6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60, S. 23.

⑩ vgl., O.A.V., a. a. O., S. 24.

⑪ vgl., a. a. O., S. 25~26.



있었을 뿐이었다. 프로이센政府는 이 建議案의 趣旨에 따라 Hansa 同盟 諸市の 協贊을 얻으며 敢行하려 했었기 때문에 Hansa 同盟 諸市の 도움을 얻은 후 1859年 8月 9日 使節의 任命과 隨行하여야 할 專門家의 人選 或은 파견함대의 편성 및 贈與할 物品의 구입 등을 위한 豫算案이 可決되어졌던 것이다. ㉔

먼저 使節로는 當時 Hamburg 駐在 프로이센 全權公使 Frhr. von Richthofen 男爵이 任命되었으나 그가 固辭했기 때문에 그의 後任으로 公使館 參事官 兼 Warschau 總領事 Friedrich Albrecht Graf zu Eulenburg 가 任命되므로써 소위 Eulenburg-Mission 을 편성케 되었으며 그의 隨行員中의 代表的인 人物은 다음과 같다. ㉕

使節團長 Eulenburg 는 1815年 6月 29日 Königsberg 에서 出生하였으며 1849년에 內務部에 들어갔으며 여기서부터 官吏生活을 시작했다. 1852年 外務部로 옮겨 Antwerpen, Warschau 等地에서 總領事로 근무했고 1859년에는 全權大使로 任命되어 極東航海를 指揮케 되었던 것이다. 1862年 12月 8日 Bismark 內閣의 內務部長官에 補任되어 行政改革을 斷行하기도 했다. 1881年 6月 2日 Berlin 의 Schöneberg 에서 死亡할 때까지 그는 프로이센의 內外政에 큰 공로를 세웠다.

**Yachman, Edward Karl Emanuel**(1822~1887) 1845년에 海軍에 入隊하고 '64년에 丁抹 함대와의 海戰에서 功을 세웠고 1860年 海軍中領으로 Eulenburg 使節團의 Thetis艦의 함장으로 極東航海에 참여했다. 그는 그後 海軍中將으로까지 榮進했다.

**Werner, Reinhold von**(1825~1909) 1852년에 海軍에 入隊한 그는 1860년에 Elbe함의 함장으로 極東을 訪問했다. 그의 많은 저서中 Die Preußische Expedition nach China, Japan und Siam 은 一讀의 價値가 있다.

**Sundewal**(?~1884) 極東訪問時 海軍大領으로 Eulenburg-Mission 함대의 司令官 兼 Arcona艦의 함장으로 航海를 총지휘했다.

**Frhr. von Richthofen** 地質學者로서 使節一行에 참가한 후에 樞密 고문에 任命되었다. Berlin 大學校의 명예교수 科學學士院會員 등으로 被選되어 독일學界를 위하여 크게 공헌했다.

**Retzke** 海軍中尉 Frauenlob艦의 함장으로 極東訪問中 1860年 9月 3日 日本近海에서 日氣關係로 破船하여 배와 더불어 運命을 같이 함으로서 獨日通商交涉을 위한 첫 희생자가 되었다. 이 以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파견함대는 처음 3艦艇으로 편성되었었으나 後에 Elbe號를 더 하여서 贈與品 및 食糧 燃料 등을 적재 運送시켰으며 따로 小汽艇 뷔스터號를 배에다 싣고 南方海岸에 있어서 必要한 경우에 牽引을 擔當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다. 4함선은 다음과 같다. ㉖

註 ㉔ vgl., 丸山國雄, a. a. O., S. 26~28.

㉕ vgl., a. a. O., S. 29~35.

㉖ vgl., a. a. O., S. 28~29.

1) **Arcona** 함(Dampfkorvette) 2, 320噸이며 武裝은 36磅砲 1門, 68磅砲 6門, 그리고 30磅砲 20門으로 乘務員數는 319名이었다.

2) **Thetis** 함(Selfregatte) 1, 533噸, 30磅砲 32門, 그리고 68磅砲 6門을 장치했으며 乘務員數는 333名이었다.

3) **Frauenlob** 함(Selfregatte) 95噸이며 30磅砲 1門을 무장했으며 41名의 乘務員을 탑승시켰다.

4) **Elbe** 함(Kripperfregatte) 噸數 未詳으로 武裝은 6磅砲 6門으로 乘務員數는 47名이었다. Thetis 號와 Frauenlob 號는 1859年 10月 25日에 그리고 旗艦 Arcona 號는 1859年 12月 11日에 Danzig 港을 出港했으며 運送船 Elbe 號는 1860年 3月 7日 Hamburg 港을 出帆했던 것이다. 使節함대의 편성함들의 向極東 旅行日誌는 다음과 같다.⑤

Thetis 함과 Frauenlob 함은 1859年 11月 12日 Spithead 에 入港하여 '60年 3月 15日까지 정박하고 있다가 出發하여 Funchal 에 잠깐 寄港한후 5月 18日 Rio de Janeiro 에 도착했으며, Arcona 함은 1859年 12月 11日 出航하여 1月 10日 Southampton 에 到着 4月 8日까지 정박하며 수리한 후 Spithead 및 Madeira 群島를 거쳐 5月 23日에 Rio de Janeiro 에 到着했다. 3艦은 1860年 6月 5日 Rio 를 出發하여 極東으로 向하였으나 Arcona 號는 6月 26日에, 30日에는 Thetis 號가 그리고 8月 5日에는 Frauenlob 號가 Singapol 에 入港했다. 가장 늦게 Elbe 號는 1860年 3月 7日에 Hamburg 港을 出帆하여 Spithead 를 거쳐 8月 6日에 Singapol 에 到着한후 4艦은 最終準備를 갖추고 Thetis 號가 8月 12日에 제일 먼저 Singapol 을 出港한후 다른 함선도 그 뒤를 따랐다. 1860年 9月 3日 月曜日 Frauenlob 는 目的地에 到達하기 直前 遭難 破船하여 침몰당하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9月 4日 Arcona 號가 제일 먼저 江戶灣에 모습을 나타낸후 Thetis 함은 9月 14日에 Elbe 함은 12月 7日에 神奈川에 入港하므로서 Thetis 號가 Danzig 港을 出港하므로 始作한 一個年餘의 긴 여행의 前半이 끝나고 使節의 條約체결을 위한 協商이 始作되었던 것이다.

## 2. 條約의 체결

1860年 9月 4日 火曜日 使節團長 Eulenburg 가 乘船하고 있었던 Arcona 함은 伊豆半島를 돌아 江戶灣에 入港했다. 入港하자 駐日 佛蘭西代理公使 Duchesne de Bellecourt 는 使者 Abbe Girard 를 파견하여 對 日本교섭에 도움을 주겠다고 傳하였으며 駐日 美合衆國辦理公使 Townsend Harris 는 佛語에 能通한 秘書官 Huysken 을 使節團을 위한 通譯으로 利用하도록 허락했다. Eulenburg-Mission 은 Huysken 의 도움으로 上陸許可를 얻고 9月 8日 6隻의 小艇에 分乘하여 品川海岸에 上陸하고 赤羽接遇所에 들어가 그 뜰안에 프로이센의 國旗를 掲揚하므로서 通

註 ⑤ vgl., 丸山國雄, a. a. O., S. 35~37.

商條約 체결을 위한 作業이 始作됐던 것이다. Eulenburg 는 9月 29日과 10月 3日 2次에 걸쳐 文書로서 條約의 체결을 要求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却下되었다. 이때 독일代表는 “萬一 내가 군함 몇隻을 인솔하고 온다면 우리들의 要求는 곧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잠시 참으며 許可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日本幕府는 독일使節들에 對하여 “萬一 우리가 貴國政府의 희망에 응하여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上下의 不平을 招來하여 國論의 紛糾을 齊來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永久히 貴國의 要求를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잠시동안 時期를 기다려서 永遠한 親交를 맺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使節團은 日本과 和蘭國間에 1855年 12月 23日에 체결했던 和日和親條約의 附錄 第11條의 規定을 引用하여 強力히 日本幕府의 態度의 變경을 推測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他面에서는 美合衆國의 Harris 公使를 通한 積極적인 助力을 바랐다. 그는 1860年 11月 24日 安藤閣老를 訪門하고 프로이센과 條約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860年 12月 13日 日本幕府는 外國奉行 堀織部正利熙 竹本圖書頭正雅 等を 代表交涉委員으로 任命하여 協商에 임하게 했으나 一時 독일聯邦의 國號칭 개념의 해석을 中心한 問題로 會談이 停頓되어졌었으나 해결되어 1861年 1月 24日 兩國間에 修好通商條約 및 貿易章程이 체결되었다. ⑤

本條約의 批准은 이것을 後日로 保留하고 假條約에 兩當事國의 全權委員의 調印을 받고 假條約 調印日로부터 24個月後인 1863年 1月 1日부터 實施하도록 約定했던 것이다. 이 條約의 체결을 通하여 프로이센인이 아닌 독일人들은 프로이센國民으로 귀화한다든가 或은 프로이센人이라고 詐稱하지 아니하면 對日通商이 困難케 되었으며 이 事實은 他面에 있어서는 北部 독일聯邦에 있어서 프로이센의 영향力이 擴增되어지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全文 23條項으로 구성된 通商條約은 독일과 日本間에 체결되기 以前에 이미 체결되어진 他國과 체결한 條約과 大差가 없었다. 이때 체결된 關稅規定은 1899年에 行하여진 關稅改正까지 有効하였다. 日本幕府가 外國과 關稅條約을 체결하는데 基本이 된 것이 美合衆國과 日本間에 체결된 條約인바 兩國間에 協約을 規定하기 위하여 會談할때 日本은 輸出入商品에 對하여 12.5%의 稅率을 主張했으나 美合衆國代表 Harris 는 다른 의견이었다. 會談의 結果는 輸出入商品에 對하여 一般적으로 5%의 關稅率을 규정했던 것이다. 勿論 알콜系 음료라든가 英國으로부터 主로 수입되어졌던 몇 종류의 工產品에 對하여는 20~35%의 例外規定도 있었다. ⑥ 一方的이고 不平等하고 그리고 극히 不利한 關稅規定이라는 事實을 알자 곧 日本幕府는 改正을 要求케 되었으나 하여튼 프로이센은 꽤 有利한 關稅條約을 체결케 됨으로써 自國商人들에게 꽤 有利한 立場을 확보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창기에 있어서 독일과 日本間의 무역은 量的으로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註 ⑤ vgl., O.A.V., a. a. O., S. 64.

⑥ vgl., 輯西正雄, 日本資本主義の成立, 卷一, 東京, S. 131~132.

日本政府와 近 5個月間的 교섭 끝에 條約의 假調印에 成功할 수 있었던 Eulenburg-Mission은 1月 31日 江戸를 떠나 長崎에 一時 寄港했다가 上海로 向하였다. 그리고 그곳서 中國과의 通商條約의 체결에 成功하고 귀국했던 것이다. 그後 1868년에 다시 協議가 시작되어 1869年 2月 20日에 독일 北部聯邦과의 修好通商航海條約은 成立하고 이 條約은 同年 9月 9日 批准되어 同月 11日에 東京에서 批准書가 교환되어졌다.

독일과 韓國과의 通商協商은 1870年 駐日독일公使 Max von Brandt의 訪韓으로부터 始作했다. von Brandt가 韓國을 訪問하고 通商條約을 체결한 最初의 독일인은 아니다. 이미 19世紀 中葉에 유대系 독일人인 Ernst Opert가 通商을 要求하고 있다. ⑳ 1882年 5月 15日 兩國間에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고 1883年 10月 27日에 正式으로 서명되어졌다. 독일側을 代表해서 駐橫濱 독일총영사였던 Eduard Zappe가 서명했고 ⑳ 條約체결후 副領事 Budler가 첫 駐韓 독일 外交官으로 파송되었고 1884年 8月 總領事 Zembach에 依하여 兩國間的 外交關係가 正式으로 이룩되었다. 韓獨兩國間的 關稅規定은 1883年 11月 26日에 兩國間에 조인된 通商修好章程에 依하여 확정되었는바 이것은 韓國과 英國間에 체결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석된다. 韓國과 독일間의 關稅率은 韓日合併時까지 그대로 維持되었다. 독일의 무역相對國은 대략 3分 類할 수 있는바㉑ 그 첫째는 關稅條約을 체결한 國家群, 둘째는 相互 最惠國대우를 인정하고 있는 國家群, 그리고 셋째는 무역 協定을 체결하지 아니한 國家群이다. 韓國과 日本은 다 함께 最惠國대우를 인정한 國家群에 屬한다. 韓獨, 獨日間에 條約이 체결되기 前에도 이미 獨商人과 商社들의 訪問이나 進出이 있었으나 체결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交易을 目的으로한 독일 人의 來訪이 急增하였던 것이다.

#### IV. 獨逸商社의 極東進出

##### 1. 通商條約 체결以前에 있어서의 往來

1832년에 廣東에 入港했던 西歐船舶을 선적別로 보면 英國船 90隻 美合衆國船 62隻인데 比하여 오직 1隻의 Hamburg 船舶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2年後인 1834년에는 총 182隻의 유럽 및 美合衆國적 선박中 오직 3隻만이 함블크旗를 붙이고 있었으므로 독일의 對 極東交易이 極히 미미했음을 알수가 있다. ㉒ William O'swald는 1843年 2月 6日 그가 Berlin으로 보낸 52面의 Denkschrift에서 對 極東交易을 위한 國家와 政府의 積極적인 支援을 提案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843년에는 프로이센과 關稅同盟에 加入한 國家間에 체결된 協약에 依하여

註 ㉑ vgl., Ernst Opert, *A forbidden Land*, London 1890.

㉒ vgl., 亞細亞問題研究所編, 舊韓國外交文書, 15卷, 서울, 1966, S. 6~7.

㉓ vgl., Kwang-Soo Kim, a. a. O., S. 146.

㉔ O.A.V., a.a.O., S. 41.

Preußischer Ökonomierat Friedrich Wilhelm Grube aus Düsseldorf 를 극동으로 파송하므로서 독일商品을 위한 市場과 그 交易의 可能性에 關한 分析을 시켰던바 Grube 는 가장 먼저 極東으로 進出한 독일商人 Karl Gützlaff 와 Richard von Carlowitz 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④

Leipzig 에 本社를 두었던 貿易商社인 C. Hirzel & Comp. 와 Carl Gustav Harkort 는 Bernhard Harkort 와 그의 親友 Richard von Carlowitz 를 極東으로 파송했으며 이들은 1843年 11月 2日 Bremerhaven 을 出港한 “Anna und Elise”號에 적재된 작센과 웨스트팔地方産인 섬유製品과 金屬製品을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봉쇄되어 있었던 市場의 사정을 報告할 責務를 맡았던 것이다. ⑤ 이 두 青年은 1846年 1月 1일에 廣東에다가 Carlowitz Harkort & Co. 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독일商人의 極東進出을 先導했던 것이다. 이 以外에도 Altona 出身 商人 Wilhelm von Pustau 에 依하여 설립된 Wilhelm Pustau & Co. 와 Georg Theodor Siemssen 에 依하여 설립된 Siemssen & Co. 가 활약하고 있었다. Bremen 에서 發行되어졌던 Weser-Zeitung 에 紹介된 것을 보면 1846년에 독일 國外에 存在했던 독일商社는 465名의 Chef와 774名의 従業員을 가진 393社였다. 그 中 277社가 Hansa 系였다. 地域別로 보면 137社가 北美에, 48社가 멕시코, 35社가 西인도 그리고 南美에 98社가 있었다. 아시아에는 64商社가 있었는데 그 中 57社가 Hansa 系였다. ⑥

K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 에 依하여 指揮되어진 4隻의 軍함이 江戶灣을 訪問하고 日本의 開港을 要求한 後부터 독일의 商域이 中國으로부터 日本으로 계속 擴大되기 始作했던 것이다. 日本政府와의 關聯을 맺고 通商條約을 위하여 교섭한 最初의 독일商人은 Fr. August Lühdorf 이었다. 그는 350噸크기의 Brigg, “Greta”에 탑승하여 Hakodate 와 Shimoda 로 航海하여 自己計算으로 판매했고 Greta 號의 船長 G. Thaulow 와 더불어 Shimoda-Nagasalki 의 Gouverner 를 通하여 日本이 독일과도 通商條約을 체결하고 開港해 주도록 幕府에 청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이다. ⑦

1859년에 독일商人 Louis Kniffler 가 그의 체제지 Batavia 로부터 Bremen 人 Martin Hermann Gildmeister 를 同伴하여 日本에 入國하였으며 이어 그들은 同年 7月 1일에 日本에 最初로 독일商社 Firma L. Kniffler & Co. 를 설립하므로 新紀元을 이룩했다. Louis Kniffler 는 Düsseldorf 出身으로 젊어서 Hamburg 로 옮겨 Firma Bellenhagen & Co. 에 근무했다. 이 會社는 Batavia 에 設立되었던 Firma Pandal & Stiehauser 와 긴밀한 聯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契機로 Kniffler 는 1853년에 Java 의 首府로 옮겼다가 荷蘭政府가 所謂 Kultursystem 을 導入하고 商

註 ④ vgl., O. A. V., a. a. O., S. 44.

⑤ vgl., a. a. O., S. 45~46.

⑥ vgl., a. a. O., S. 56~57.

⑦ vgl., a. a. O., S. 61~62.

易에 있어서 獨占權을 享有하자 日本으로 移動하였던 것이다. Kniffler 가 會社를 설립한 거의 같은 때에 다른 5個의 독일商社가 設立되었는바 그것은

1) Schutze, Reis & Co., 2) Textor & Co., 3) Gütschow & Co., 4) Grösser & Co. 그리고 5) W. Grauert 商社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6) Firmen Lindau & Co., 7) A. Schnepel & Co. 및 8) A. Schmidt & Co.가 設立되므로서 1860年 Eulenburg Expedition 이 日本을 訪問했을 때에는 그곳에 9個의 독일商社가 있었던 것이다. 1862年 橫濱에는 다만 25名의 프로이센人만이 살고 있었다. ④ 독일과 日本間에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기 以前에 日本에 設立되어졌던 독일商社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⑤

### 1) Carlowitz & Co.

阿片戰爭後 1842년에 南京條約이 체결되고 中國의 5個港이 西歐商人들에게 開放되자 두 독일青年 即 Richard von Carlowitz와 Bernhard Harkort 가 1843年 Bremerhaven 을 出港했으며 이들은 各各 Manila, Macao, Ningpo, Shanghai, Amoy, Hong Kong 等を 訪問한 후 1845年 가을에 廣東에다가 Firma Carlowitz, Harkort & Co. 라는 商號로 開店했던 것이다. 1847年부터 Carlowitz 는 작센과 프로이센의 駐廣東領事로 任命되므로 事實上 그는 中國에 있어서의 最初의 독일代表로 활약하여야만 했으며 後에 그는 北獨聯邦과 독일제국의 代表로 補任되기까지 했다. 約 10年間의 幸運의 發展을 이룩했던 이 商社도 英國人에 의한 공격과 太平革命으로 말미암아 큰 損害를 입었다. 1856年 Bernhard Harkort 와 分離하여 商號를 Carlowitz & Co. 로 개명했으며 西歐 특히 London, Marseille 와 中國과의 船舶왕래가 활발해지자 1866년에 社員 Theodor Eimbcke 의 지휘 밑에 香港에 支社를 開設했다. 一般的인 商品매매나 수출입업무 以外에 海岸航海를 위한 선박의 대여 및 판매업무까지 擔當했다. 1871年 香港과 西歐間에 海底電線이 開通되자 그 업무가 一層 더 활발해졌다. Shanghai, Tientsin, Peking, Tsingtao 그리고 Tsinanfu 等に 계속 支店을 開設한 Carlowitz 會社는 1903년에 神戶에로 進出하여 積極적인 對日交易을 擔當했다. 이 商社는 주로 武器, 軍裝品, 鐵道附屬品 그리고 鑛山機械를 交易對象 商品으로 取扱했으며 政府에 對한 독일資金차관교섭도 擔當했다.

### 2) Wilhelm Pustau & Co.

Conrad Hinrich Donner 밑에서 商人으로서의 修鍊을 쌓은 Altona 出身인 Wilhelm von Pustau 는 1842年 即 그가 22歲時에 Carl Brodersen 과 더불어 독일을 떠나 Hong Kong 을 거쳐 廣東에 도착하여 Wilhelm Pustau & Co. 를 開設했다. 이 會社는 美合衆國 政府에게 자기선박 Greta를 대여해 줌으로 독일商人 Lühdorf 가 이 기회를 利用해서 自己計算으로 상業에 從事하게 했던 것이다.

註 ④ vgl., O. A. V., a. a. O., S. 75~76.

⑤ vgl., a. a. O., S. 186~201.

### 3) Siemens & Co.

Georg Theodor Siemens 은 1837年 가을에 Ross, Vidal & Co. 의 任務를 맡고 독일을 出港하여 Australien 과 Batavia 를 거쳐 1846年 10月 1日 廣東에 商社를 設立했는데 이때 그는 그가 1841년부터 45년까지 4年間 Batavia 에 있었던 T.E. & C. Vidal 商社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充分히 活用했던 것이다. Siemens 은 Woldemar Nissen 과 Ludwig Wiese 를 同僚로 隨伴했다. 이미 그는 1855년에 Hong Kong 에도 商社를 開設하고 있었다. 이 商社는 藥, 鹽, 糖, 조미료, 藥材, 대나무, 쌀, 石炭 그리고 섬유製品 등을 主要去來 商品으로 取扱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船舶의 대여業務와 海岸航海業務部門에도 깊은 關心과 업적을 올리고 있다. 1865년부터는 銀行 金融業務도 擔當하기 시작했으며 그後 保險分野까지 業務를 擴大시켰다. Siemens & Co.가 그의 Foochow 所在 支店을 廢社하자 1885年 Gustav Siemens 은 Hongnamen von Siemens & Co. 와 더불어 이것을 맡아 Gustav Siemens 이란 商號로 변경 開設했다. 1895年 1月 1日 그는 Werner Krohn 과 合同으로 Firma Siemens & Krohn 로 改名 發展시켰는데 그때 까지 Werner Krohn 은 Foochow 에 所在했던 Firma Schönfeld 商社의 同業人중의 一人이었다. 이 兩會社는 積極적인 對日交易은 行하지 아니하였으나 間接적으로 크게 影響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4) Carl Ernst Boeddinghaus

日本에 있어서 독일商人 활약의 先導의인 역할을 한 會社中의 하나이다. Carl Ernst Boeddinghaus는 1834年 2月 3日 Lüttringshausen에서 出生했으며 1859年末에 極東을 向하여 出帆하여 약 300日後에 Macao 에 寄着했으며 잠시 체재한 후 곧 長崎로 向하였다. 開港直後인 日本은 外國 商社 및 商人에 대하여 많은 制限을 加하였다. 外國人은 Desima 섬에 商社를 設치하고 日本 內陸으로 여행하려할 때에는 特別許可를 얻어야만 했었다. Boeddinghaus 는 數年間 Firma Textor & Co.에서 근무한 후 F. Dittmer 와 더불어 1867년에 長崎에 Firma Boeddinghaus, Dittmer & Co. 를 設치했으나 오래가지 못하여 70年代에 Dittmer 와 分離하여 Carl Ernst Boeddinghaus 라고 商號를 改名하고 單獨 經營했다. 交易은 日本은 勿論 獨, 和, 英, 中國 그리고 韓國을 相對로 行하였으며 主要 去來商品은 茶, 銅, 生糸, 樹脂 등이었으며 航海船舶에 對한 石炭供給도 擔當했다. 여기에 特記해야 할 것은 Carl Ernst Boeddinghaus 은 韓國으로부터 호랑이 등 맹수를 유럽으로 輸出하므로 歐州에 있는 많은 동물원에 그 수요를 말았던 事實이다.

### 5) China Export-Import & Bank Compagnie Ltd.

Paul Ehers 은 1856年 5月 8日 Bark “Esperanz”로 廣東을 向하여 出港하였으며 1859年 1月 1日 Theodor Hesse 와 같이 Firma Hesse, Ehlers & Co. 를 開店했으며 1861年 7月 7日에는 香港에다 支社를 設치했다. 그는 當時 中國과 日本이 物産分野에 있어서 몹시 뒤떨어져 있는데 着眼하여 염료의 수입에 積極성을 더우기 시작했으며 그 結果 1883년에는 Hoechst Farbwerke

의 生産業로의 對 日本 및 對中國의 單獨代行業務를 獨占하였다. 獨佛戰爭後 Ehlers 는 그의 Prokuristen 인 Justus Peter Lembke 에게 香港業務를 委任하였는바 그는 Firma Justus Lembke & Co. 로 계속 經營했다. Firma Justus Lembke & Co. 는 1890年에 China Export-Import & Bank Co., Hamburg 와 關係를 맺고 1893年에 神戶 그리고 1900年에는 橫濱에 支社를 開設 經營케 되었다. 特別히 染料分野에 關心을 集中했던 이 商社는 많은 外國商人과 協同으로 數 많은 會社를 설립하고 經營하였는데 그중에 몇개를 紹介하면 Impex Chemicals Co., Ltd., Osaka, Dyestutts & Chemicals Trading Co., Ltd., Osaka Tokio 및 Nagoya 等이다.

#### 6) C. Illies & Co.<sup>④</sup>

1848年 두 Hamburg 出身의 商人인 Friedrich Pandel 과 Georg Friedrich Stiehaus 가 Batavia 를 向하여 出發했다. 그들은 目的地에 到着하자 곧 Pandel & Stiehaus 商社를 설립하고 그들의 同業者로 Hamburg 에 머물러 있었던 Jakob Bollenhagen 과 같이 交易을 漸進的으로 擴張해 갔다. 두 商人은 會社의 發展과 그들의 다른 目的으로 因하여 Jakob Bellenhagen 에게 助力者를 파송 해주기를 要求했던바 Bellenhagen은 Düsseldorf 出身의 青年 Louis Kniffler를 추천했다. Kniffler 는 1852年初에 Batavia 로 向하였으며 급작히 1855年에 Stiehaus 가 그리고 1857年에 Pandel 가 別世하자 Stäcka 와 더불어 Firma Pandel & Stiehaus 를 引受해야만 했다. 1859年初 Kniffler 와 H. M. Gildmeister 는 長崎에 到着하여 日本에 最初로 1859年 7月 1日 독일商社 L. Kniffler & Co. 를 설립했다. ;

Kniffler 는 日本의 사정을 詳細히 本國에 알리므로 독일商人들의 對 極東進출을 위하여 크 게 協助했을 뿐만 아니라 長崎駐在 領事로서 독일人の 善導와 保護에도 努力했다. 이 商社는 섬유製品, 鐵, 錫, 鉛 等 金屬類, 寒天, 銅, Rapssaat, 벌꿀 그리고 樹脂 等 廣範한 商品을 取扱했다. 長崎에 이어 橫濱에도 支店을 두었는바 여기서 主로 茶輸出을 擔當했었다. 日本에 있어서 經營은 급속도로 發展하여 모든 開港地에는 支店을 설치하였으며 Kniffler 는 독일에다 새로운 젊은 協助者를 要求케 되었다. Bollenhagen & Co. 를 通하여, 1866年에 Carl Illies 가 L. Kniffler & Co. 에 왔으며 그는 성실껏 그리고 훌륭히 事業에 종사하므로 Kniffler는 그를 1868 年에 橫濱支社를 말도록 責任지웠다. 그리고 1873年 1月 1日 Carl Illies 를 同業者로 하였다. 70年代 初에 L. Kniffler & Co. 는 日本에 4支店과 16從業員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長崎에 3名, 兵庫에 7名, 橫濱에 4名 그리고 大阪에 2名이 있었다. 이 會社는 Louis Kniffler 를 비롯하여 Gustav Reddelien 과 Carl Illies 에 依하여 運營케 되었는바 Kniffler 와 Reddelie 는 Illies 의 能力 과 人間性을 信任케 되자 1859年 7月 1日부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單獨經營케 했다. Illies 는 會社를 引受한 후 Kniffler 의 허락을 받아 1880年 5月 31日부터 C. Illies & Co. 로 改

註 ④ vgl., Käthe Molsen, C. Illies & Co., 1859~1959, Hamburg, 1959.



名하고 사업을擴張하기 위하여 Düsseldorf 에도 事業所를 開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經營을 敢行했다. 1910년부터는 그의 아들 Carl Illies Jun.이 맡아 管理케 되었다.

## 2. 通商條約 체결 後에 있어서의 독일商人

最初の 駐橫濱프로이센領事로 1863年 Max von Brandt가 任命되었고 프로이센인이 아닌 다른 모든 독일상인들도 그의 도움과 保護를 받으며 商易에 從事케 되었던 것이다. 1866년에 요코하마에 있었던 66개의 外國人商社는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組織했던바 12獨逸企業도 이에 屬하고 있었다. 商工會議所가 組織되었던 當該年度에 독일인 Rudolf Lindau가 會長으로 選任되었고 그리고 그 1年前에는 Municipal Council이 組織되었는바 2 獨逸인이 그의 幹部로 被選되었던 것이다.<sup>49</sup> 독일과 日本과의 交易은 점진적으로 發展하기에 이르러 1865년에는 18隻의 독일선박이 在日 獨逸商社를 위하여 訪日하였던바 그중 6隻은 L. Kniffler & Co.의 商品을 수송할 目的으로 航海했던 것이다. 1869년에 設立된 H. Ahren & Co.와 1873년에 설립된 Simon Evers & Co.를 비롯하여 1890년까지 日本에 本社 或은 支店을 開設하였던 會社는 Carl Rohde & Co., Otto Reiners & Co., M. Raspe & Co., J. Helm Delacamp & Co., Winkler & Co. 그리고 Becker & Co. 등이다. 1877년에 橫濱에만도 10개의 독일상사가 存在했으며 1879년에 Kobe에는 12個 독일상사가 있었다. 그리고 1898년에는 兩都市에만도 독일인에 依하여 組織되고 運營되어지고 있었던 42本支社가 있었다. 商易을 主로 擔當하는 商社以外에도 많은 독일 경제, 기술 그리고 과학이 日本産業의 組織과 發達을 위하여 크게 기여했으며 그중의 하나가 1896年 東京에 사무소를 開設했던 Siemens & Halske 會社이다.

韓國에 처음으로 商店을 열고 事業을 經營한 商社는 E. Meyer & Co.이다. 이 會社는 1880年代에 仁川에 開設되었으며 淸日戰爭이 발발했던 1894년에는 韓國에 單 2개의 外國人商社가 있었을 뿐이다. 하나는 유럽인에 依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美合衆國人に 依하여 經營되었다. 즉 前者가 독일인에 依한 E. Meyer & Co.이고 後者가 美國人に 依한 Johnson & Co.이다. 특히 E. Meyer & Co.의 經營은 몹시 활발했었고 日本人에 比하여서도 저렴한 價格으로 商品을 판매했었으며<sup>50</sup>當時의 駐仁川 英國領事는 自國政府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sup>51</sup>

“The Germans, always more Practical than we are, have been quick to recognise this fact, and now it is almost the exception to find a German commercial house in the East, in which there is not at bast one man able to talk business with the natives in their own dialect;.....it is almost superfluous to say that the German house has a German who can speak Korean, and that the English house has no Korean speaking Englishman.”

註 49 vgl., O.A.V., a. a. O., S. 77.

50 vgl., 朝鮮貿易協會編, 朝鮮貿易史, 서울, 1943, S. 265.

51 vgl., Hrsg. Foreign office. G. B.,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 on trade of Korea, for the year 1899*, London, S. 12.

1900년에 한국에는 單 1個社의 독일商社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말에 능통하고 한국어도 이해할 수 있었던 能力있는 商人이 있었기에 다른 會社보다 사업이 번창했다. 1907년에 仁川에는 많은 外國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中 西歐人을 보면 英國人 28名, 美國人 10名, 佛蘭西人 8名, 俄人 2名, 러시아人 1名 그리고 독일人 28名이 있었다.<sup>52)</sup>

1890년에 있어서 한독간의 交易比率을 보면 한국은 全獨의 輸入量에 있어서는 0.00019% 그리고 輸出面에 있어서는 0.0014%만을 차지할 程度로 극히 미미했으나<sup>53)</sup> 獨逸商人들의 태도는 력 積極적이었다. 日本과 독일 兩國間의 通商條約이 체결된후 1次大戰이 발발하기까지 활약했던 독일商社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sup>54)</sup>

### 1) H. Ahrens & Co.

H. Ahrens & Co.의 設立者인 Heinrich Ahrens는 1860年代 初에 日本을 向하여 出帆했으며 1869年 1月 1日 H. Ahrens & Co.를 開設했다. 처음에는 東京과 神戶에 있는 本支店을 혼자 經營했다. 1872년에는 M. M. Bair와 Eberhard Schmid를 同業者로 했으며 東京의 本社가 主로 日本政府와의 關係라든가 청원을 取扱한데 對하여 橫濱와 神戶의 支店은 주로 輸出入을 擔當했던 것이다. H. Ahrens 스스로가 日本言語에 숙달했었기 때문에 事業經營에 ick 有利했으며 日本政府와 官吏들로부터 두터운 信任을 받았던 이 젊은 독일商人은 비교적 단기간內에 成功할 수가 있었다. 1875년에 H. Ahrens는 單獨으로 日本商社의 Londoner Stammhaus를 설립하고 스스로 責任者가 되고 Prokuristen W. A. Dattan과 C. Schoell을 通하여 管理케 했다. 1879年 M. M. Bair와 Eberhard Schmid가 退社하자 그는 日本人 종업원의 이름으로 東京에 Takata & Co.를 設立했다.

대략 1895년까지 Londoner Stammhaus를 通하여 주로 金屬, 化學製品, 섬유類, 염료, 道具, 圖書 등을 수입했고 反對로 유럽으로는 日本製品을 수출했다. 一時 H. Ahrens & Co.는 Firma Fried. Krupp의 代行業 擔當했었고 Badische Anilin-und Sodafabrik, Ludwigshafen, Elberfelder Farbenfabriken Friedrich Bayer & Co. 그리고 Leopold Cassella & Co. 生産品인 Alizarin 염료 人造 Indigo 그리고 Indanthren 염료 등을 日本으로 수입했다. 1886年 Norddeutsche Lloyd가 帝國郵便船業務를 開始하기 前 H. Ahrens & Co.는 日本에 있어서 이 業務를 代理했다. 그러나 1886年 10月 H. Ahrens가 콜레라로 死亡함으로 이 分野에서는 큰 進展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의 死亡後 未亡人은 Th. Hake, E. Wismer 그리고 G. R. Mosle와 그리고 London에 있었던 W. A. Dattan과 함께 H. Ahrens & Co. Nachf라는 商號로 계속 經營했다. 1889年 Th.

註 52) vgl., Hrsg. Foreign Office, G.B., a. a. O., for the year 1906, S. 8.

53) vgl.,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as Deutsche Reich*, 31. Jahrgang, Berlin, 1910, S. 225~228 & S. 273~275.

vgl.,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Statistisches Hand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 2, Berlin, 1907, S. 508~513.

54) vgl., O.A.V., a. a. O., S. 175~228.

Hake 가 그리고 1892년에 G. R. Mosle 와 W. A. Dattan 과의 關係가 멀어지면서부터 會社內部에는 많은 人事上의 그리고 運營上의 不安定이 계속되었으나 商域은 점차 擴張되어 1928년까지는 서울과 牧丹에도 支店을 설치했던 것이다. 1923年 9月の 대지진 때에는 H. Ahrens & Co. Nachf. 는 13명의 독일人 종업원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받아야만 했다.

## 2) Becker & Co.

Robert Becker 는 그의 同生 Ernst Becker 와 더불어 그의 日本人 親友의 提議에 따라 神戸에 1890년에 Becker & Co. 를 開設했으며 數年後에 Th. Bunge의 入社와 더불어 橫濱에 支店을 設置했다. 世界第1次大戰이 발발하기 直前까지 이 商社는 Casella-Farbwerke 의 代理商으로서 독일염료의 工業部門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었다. 염료部門 以外에 技術分野에도 같은 關心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日本産業건설에 기여했다. Ernst Becker 의 死亡後에는 Th. Bunge 에 依하여 지도되었으며 會社업무中 機械 및 시설部門은 K. A. Büsing 에 맡겨져 管理經營되어졌다.

## 3) Heyn, Bröckelmann & Co.

1843년에 Wilhelm von Pustau 가 廣東에 Firma Wm. Pustau & Co. 를 설립하고 그後 香港과 上海에 支店이 開設되었다. 1887년에 Fritz A. Bröckelmann 과 Heinrich Heyn 은 이 商社의 同業者로 入社했으며 2年後에 von Pustau 가 退社하고 1899年 7月 1日부터 商號가 Reuter, Bröckelmann & Co.로 변경되었다. 이 商社는 輸出入業務 以外에 선박代行業도 取扱했었다. 1896년에 天津으로 商域을 擴張했으며 毛皮, 양탄자 같은 商品을 去來키 시작했다. 그後 臺灣에도 支社를 설치했던바 臺灣이 日本에 合併됨으로써 이 會社는 臺灣에 있어서의 樟腦去來를 獨占하다시피 했다. 一般의으로 日本에서는 이 會社가 Heyn, Bröckelmann & Co. 로 오랫동안 經營되어졌다.

## 4) Kunst & Albers.

Kunst & Albers 商社는 1864年 두 Hamburg 人에 依하여 Wladiwostok 에 설립되었다. 이 두 사람이 Gustav Kunst 와 그의 親舊 Gustav L. Albers 인바 Albers 는 海路를 통하여 독일商品을 Wladiwostok 에 운송하고 交易에 제공한 첫사람이라고 傳해진다. 그들이 Wladiwostok 를 그들의 근거지로 選擇한 사실은 곧 펍 賢明했다는 것이 證明되었다. 1872년에 함대근거지 및 地方行政官廳 所在地로 되면서 都市는 급속히 發展되었고 시베리아地帶의 發展은 Firma Kunst & Albers 로 하여금 東시베리아와 만주에만 28個處에 支社를 설치케 했고 1,200名 以上の 종업원을 확보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日本에까지도 前進基地를 開設하고 西歐와 極東間의 交易 및 船舶代行業을 경영했다. 即 Hapag 이나 Lloyd's 社의 업무를 맡았으며 1887년에는 Wladiwostok 에다 銀行業所를 開設했다. 뒤에 Kunst & Albers Co. 는 Sachalin 에서의 石炭採掘許可를 얻었고 日本海域에서의 漁獲權을 얻어 경영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Wladiwostok 에는 工

場까지 건설하여 직접 生産에 종사까지 했다.

#### 5) Mee-Yeh Handels Compagnie.

Hamburg 에 自己의 이름으로 會社를 설립하고 天津과 仁川에 支店을 가지고 있었던 H. C. Eduard Meyer는 그의 兄弟들과 같이 1881년에 Hong Kong 에다가 Mee-Yeh Handels Compagnie를 설립했다. Mee-Yeh 는 독일명 Meyer 를 中國文字로 發音대로 表記한 것이라고 主張되어진다. 開店直後에 Siemssen & Co. 의 종업원으로 1878年 香港으로 온 J. H. Garrels 가 이 會社의 同業者로 入社했고 1886年 11月 1日에 Ferdinand Lemke 의 지휘하에 上海에다 Meyer Lemke & Co. 이란 商號로 擴張 설립되었다. 이 商社는 주로 工產品 특히 英國產 섬유類와 독일產 Sundries 를 수입했고 中國產의 毛皮와 煙草를 수출했다. 1890년부터 1904年 사이에는 船舶代行業을 맡아 1,500噸으로부터 1,700噸까지의 선박 4隻을 가지고 Asiatischen Küstenfahrt-Gesellschaft 의 업무를 委任받고 담당했다.

#### 6) Sander Wieler & Co.

1860年代에 設立된 Hong-Kong-Firmen Sander & Co. 와 Wieler & Co.가 合併하여 設立된 것이 Sander, Wieler & Co. 이다. Sander & Co. 는 Friedrich Sander 에 依하여 설립되어 주로 輸出入業務에 從事했다. Wieler & Co. 는 Firma Oscar Wieler 로부터 設立되었고 이 商社는 처음 무역과 船舶業에 종사했다. 合併後 이 商社는 특히 臺灣에서의 大成을 보았다. 특히 工場의 건설, 교량가설 및 鐵道의 부설面에 많은 參與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Leopold Cassella & Co. 產의 아니린 염료의 單獨販賣權을 가졌었고 Österreichischer Lloyd 會社의 香港에 있어서의 業務代行業을 위탁받았다. Sander, Wieler & Co. 는 中國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는 神戶와 橫濱에 所在했던 Becker & Co. 와 關係를 맺고 商品의 수출입업에 종사했다. 이 商社는 中國, 日本, 香港以外에 만주, 말레이지아, 자바 및 한국과도 긴밀한 商易 關係를 맺었었다.

#### 7) Schmidt & Co.

19世紀 末로부터 20世紀 初葉에 걸쳐 독일의 對 極東貿易에 크게 공헌한 業體中の 하나로 Schmidt 商店과 Schmidt & Co. 가 屬한다. Schmidt-Shoten 은 1896年 Paul Schmidt 에 依하여 東京에 設立되었다. 처음은 프랑스光學器機會社의 代理店으로 종사했으나 後에는 日本의 工業化에 必要하고 그 수요가 급증하는 독일 工產品의 교역에 그 主去來目標을 두었다. Ernst Leitz GmbH., Wetzlar, E. Merck, Darmstadt 의 이름과 生産品이 이 會社를 通하여 日本에 紹介되어졌던 것이다. Schmidt & Co. 는 1912년에 北京에 開設되어졌다.

#### 8) Simon, Evers & Co.

現在의 Simon, Evers & Co. GmbH 의 歷史는 1873年 1月 2日 Julius Simon 과 August Evers 에 依하여 설립된 貿易會社 Simon, Evers & Co. 로 소급해야 할 것이다. 當時의 이 商社의 주

요 交易商品은 쌀과 機械類이었다. 이 商社는 日本米를 S. E. C.라는 마크로 유럽市場으로 수출했고 그 反對로 日本의 工業化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계수요를 技師 Ludwig Leybold를 자문으로 해서 取扱했던 것이다. 1907年 Leybold가 死亡하자 판매조직을 日本에서 有名해진 “Leybold”라는 이름으로 支店形態로 변경했으며 1909年末에 이 貿易商社와 Simon, Evers & Co.는 GmbH 형식으로 변형시켰다.

### 9) Winckler & Co.

이 商社는 1885年 Jakob Winckler에 의하여 橫濱에 설립되었다. Stade에서 教師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로 1871年 訪日하여 처음에는 H. Ahrens & Co.에 근무하다가 Ahrens가 死亡한후 獨立했다. Winckler & Co.의 사업은 生糸, 絹織物, 毛皮, 도자기, Ptefferminz Menthol Agar Agar Japanwachs를 主要商品으로 取扱했고 美合衆國과의 交易도 活潑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여 곧 神戶와 名古屋에 支店을 開設했고 1907년에는 靑島에 支社를 두어 Erdnüsse의 수출에 積極성을 띄었다. 1890년에 Jakob Winckler는 日本에다 貝類로 만드는 단추工場을 建設했고 이어서 Lackwaren工場 Cloisonniwaren工業 그리고 Strohgeflecht工場 등을 建設했고 또한 日本 企業人에게 長期的인 金錢貸與까지 取扱했다.

紹介된 商社以外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日本의 工業發達과 交易에 참여한 企業은 많이 있다. 生産業體, 船舶輸送業體, 金融・銀行業體 등을 除外하고 1900年代以前에 關聯을 맺었던 商社名은 다음과 같다.

商社名	設立年度	設立者
① O. H. Anz & Co.	1886	Otto Anz
② Behn, Meyer & Co.	1840	Theodor August Behn, Valentin Lorenz Meyer
③ Bernhard Buschmann	1862	Eduard Schellhaß, Ludwig Bayer
④ Freudenberg & Co.	1873	Philipp Freudenberg
⑤ Germann & Co.	1846	Arnold Germann, Carlos Germann, Max Tornow, u.s.w.,
⑥ B. Grimm & Co.	1878	Bernhard Grimm, Erwin Müller
⑦ John Hagenbeck & Co.	1890	John Hagenbeck
⑧ Jebsen & Co.	1895	Jacob Jebsen, Heinrich Jessen
⑨ W. B. Ledeboer & Co.	1850	W. B. Ledeboer
⑩ Melchers & Co.	1866	Hermann Melchers
⑪ J. Mohrmann & Co.	1847	Julius Mohrmann
⑫ Buchhandlung Max Nössler & Co.	1899	Max Nössler, Heinrich Ziegenspeck
⑬ Carl Schlieper	1880	Carl Schlieper
⑭ Siemssen & Krohn	1895	Gustav Siemssen, Werner Krohn
⑮ Speidel & Co.	1873	Karl Theoder Speidel, Friedrich Wilhelm Speidel

## V. 結 言

世界第2次大戰에 있어서의 敗戰國 독일은 극히 짧은 期間內에 그들의 아팠던 상처를 씻고 또 다시 經濟的 強國으로 成長했다. 그들이 再起가 不可能하다고 생각되어졌던 狀況下에서 그렇게도 빠르게 그리고 굳세게 일어날 수 있었던 精神은 비단 現時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他國에 比하여 늦게 産業革命과정에 들어갔고 또 그것도 꽤 어려운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行政的 與件下에서 進行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뒤따랐고 極東市場에 있어서의 경쟁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떤 面에서는 앞서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 원동력인 독일국민의 努力과 鬪志가 곧 그들의 健全 精神의 所産이라고 확신한다. 無數한 關稅地域으로 分割되어 있었던 祖國을 경제적으로 統一시킨 그들은 곧 Eulenburg-Mission 을 편성 파견하여 對 極東交涉에 임하게 하였으나 그 協商은 무척 困難했었으나 인내와 기다림을 克服한 Eulenburg 를 비롯한 모든 使節團員이 가졌던 정신과 같은 자세로 市場을 개척했고 또 직접 경영에 參加했던 商人과 商社에 對한 分析이 너무나 外皮만 더듬은듯 하다. 보다 깊은 分析은 다음으로 미루며 끝으로 參考로 第1次世界大戰이 발발하기 前에 이미 한국과 日本에서 商業에 종사한 業體中 現存하는 商社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商社名)	(現住所)
Becker & Co.	Hamburg 1, Altstädterstr. 15
Corlowitz & Co.	Hamburg 1, Burchardstr. 17
C. Illies & Co.	Hamburg 36, Gänsemarkt 45
C. Melchers & Co.	Bremen 1, Schlachte 39—40
E. G. Kistenmacher & Co.	Hamburg 1, Burchardstr. 8
Germann & Co.	Hamburg 13, Mittelweg 118
H. Delacamp & Co.	Hamburg 36, Esplande 41
Heinrich Gansberg,	Bremen, Postfach 60
Heyn, Bröckelmann & Co.	Hamburg 1, Spaldingstr. 160
Johann Grostmann Co.	Hamburg 1, Glockengiesserwall 15
Kosmos-Export GmbH.	Hamburg 1, Mönckebergstr. 17
Leo Adams.	Hamburg 11, Trostbrück 1
Ludolph Struve & Co.	Hamburg 4, Millerntorplatz 1
Raspe & Paschen.	Hamburg 11, Zippelhaus 5
Simon, Evers & Co.	Hamburg 1, Mönckebergstr. 31
Sinalco Aktiengesellschaft Detmold.	Detmold, Bahnhofstr. 3—4
Svipio & Co.	Bremen 1, Breitenweg 33
Schmidt & Co.	Frankfurt/M, Im Trierischen Hof 7
Sander, Wieler & Co.	Hamburg 1, Altstädterstr. 15
Winckler & Co.	Hamburg 36, Jungfernstieg 51

## 参 考 文 献

1. Asahi, Isoshi; The Secret of Japan's trade expansion, Tokyo, 1934.
2. Bechtel, Heinrich;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s, Bde. 3, München, 1956.
3. Berliner, S; Organisation und Betrieb des Japanischen Importhandels, Hannover, 1920.
4. Chung, Henry; Korean treaties, New York, 1919.
5. Clapham, T.H.;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 Germany, 1815~1914, Aufl, 4, Cambridge, 1963.
6. Hrsg, Inspector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on the trade, navigation, industries, etc, of the ports open to foreign commerce in China and Korea and on the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the treaty port provinces, 1882~1891, Shanghai, 1893.
7. Hrsg. Zentralverband Deutscher Industrieller; Der Deutsche Vertragszolltarif, Berlin, 1905.
8. Hrsg, Foreign Office (G.B);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 on the trade of Korea for the year 1890~1914, London, 1891~1915.
9. Hrsg, Ostasiatischer Verein; Gedenkschriften zum 5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50.
10. Hrsg, Ostasiatischer Verein; Gedenkschriften zum 6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60.
11. Hrsg, The Bureau of commerce, Department of Agriculture & commerce; General View of commerce & Industry in the Empire of Japan, Tokyo, 1897.
12. Gerloff, Wilhelm; Die Finanz—und Follpolitik des deutschen Reiches, 1867~1913, Tena 1913.
13. Gothein, Georg; Der deutsche Außenhandel, Berlin, 1901.
14. Hattori Yukimasa; The foreign commerce of Japan since the Restauration 1869~1900, in; social and industrial history of Johns Hopkins University Studies, Volume XXII, Baltimore, 1904.
15. Hirschmeier, Johannes; The Origins of enternevership in Meiji Japan, Cambridge, Mass., 1964.
16. Hrsg, Internationales Bureau für Zolltarife; Internationaler Anzeiger für Zollwesen, *Tschosen* ("Korea"), 82, Heft, 1913~1914 Tabrgang, Brüssel, 1913.
17. Kinoshita, Yetaro; The past and present of Japanese commerce, New York & London, 1902.
18. Koepsel, Kurt; Die Entwicklung des Japanischen Aussenhandels, insbesondere der deutsch-japanischen Handelsbeziehungen vor dem Weltkrieg, Kassel, 1929.
19. Lotz, W.; Die Handelsgeschichte des Deutschen Reichs unter Caprivi und Hohenlohe, 1910.
20. Lütge, F.;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fl. 3, Berlin, Göttingen & Heidelberg, 1960.
21. Molsen, Käthe; C. Illies, 1859~1959,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deutsch-japanischen Handels, Hamburg, 1959.
22. Plaut, Theoder; Deutsc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 Berlin, 1929.
23. Hrsg,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Report of the foreign trade and shipping 1908, Schanghai, 1909.
24. Saitorius von Waltershausen, A.;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1815~1914, Tena, 1920.
25. Stein, Walter; Handels-und Verkehrsgeschichte der deutschen Kaiserzeit, Berlin, 1922.
26. Uyehara, S.; The industry and trade of Japan, London, 1926.
27. Wiesinger, K.; Die Zölle und Steuern des deutschen Reiches, Aufl. 6, München & Berlin, 1912.
28. Kwong-Soo Kim; Der Außenhandel Japans und Kore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utschlands, 1890~1914, Heidelberg, 1969.